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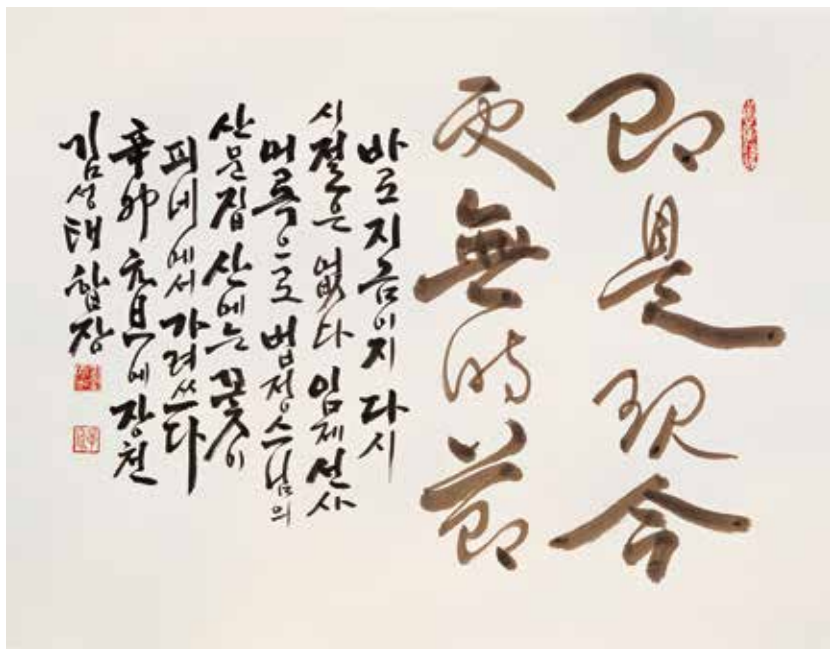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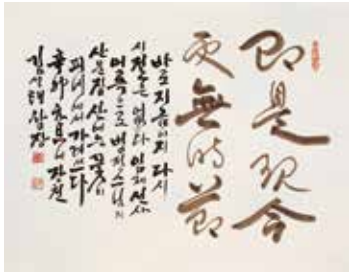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즉시현금 강무시절(56x44) · 장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5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처음 마음으로	09	참회와 수행
내 마음속 풍경	14	갑과 을
따뜻한 이야기	18	자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0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청춘들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23	아~ 백두산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6	방랑이 깎던 노인
공감대화로 소통합니다	28	공감대화 첫 번째 항목 '상황'
향기나는 우체통	31	설해목을 치료하다
샌디에고 암탉	34	키스 할아버지네 집
참교육 이야기	38	자본주의 '드로르'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사색의 뜰	42	배움의 길에서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3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정은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글·법 정(法 頂)

한밤중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끝없이 오랜 세월을 두고 수도를
 방해하는 것은 졸음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루 종일 어느 때나 맑은 정
 신으로 깨어 있으면서 흐리지 말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아 있거나 눕거
 나 간에 조용히 속으로 살펴보아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다. 덧없는 세월은 찰나
 와 같으니 나날이 놀랍고 두려우며,
 목숨은 잠깐이라 잠시도 보증할 수
 없다.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는가.

졸음 뱀에 구름 끼니 마음 달 흐려
 수행자가 여기 와서 갈 바를 모른다.
 이속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빼어 들면
 구름은 간데없고 달빛만 환하리.

-야운 비구(野雲 比丘)의 《자경문(自警文)》

10여 년 전 다시 산으로 돌아올 그
 무렵, 할 일이 많은데 어찌서 산으
 로 들어가려느냐고 묻는 친지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하곤 했었다. 산으로
 들어가 잠이나 실컷 자려고 그러네.
 사실 도시 주변의 절간에 머무는
 6,7년 동안 나는 늘 잠이 모자랐다.
 이 일 저 일에 상관하느라고 밤늦게
 잠자리에 드니 숙면이 될 턱이 없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절 앞길로 질주
 하는 차 소리 때문에도 깊이 잠들 수
 가 없다. 그러나 막상 산에 돌아와
 살게 되니 잠만 잘 수가 없다. 산에
 서는 산에서 대로 할 일이 있기 때
 문이다. 더구나 손수 끓여먹고 도량
 이라도 가꾸자면 폭 설 여가가 없다.

가끔 혼자서 하는 푸념이 있다. 어
 디 가서 더도 말고 한 댕새 해놓은
 밥 좀 얻어먹으면서, 날마다 더운물
 에 목욕하면서 폭 좀 쉬었으면 좋겠
 네라고. 내 복에 어디 그럴 수 있으
 라 싶어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으로
 남을 뿐이다.

피로를 푸는 일은 잠이 제일임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한잠 폭
 자고 나면 다시 생기를 돌이킬 수 있
 다. 그런데 이 잠이라는 게 습관이
 되다보면 잘수록 더 졸음이 오고 곤
 하게 된다. 잠자리에 오래 누워만 있
 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니
 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더 피
 로가 쌓인다.

모든 일은 길들이기 탓이다. 어떤
 스님들은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자
 고도 말짱하다. 장좌불와(長坐不臥)
 라고 해서, 아예 바닥에 눕지 않고
 앉은 채 정진하면서 잠깐 졸 뿐이다.
 그러고도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
 다. 그만큼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우리들 인간 자체가

하나의 신령스런 영체(靈體)라는 것.
 이 몸은 그 영체에 소속된 그림자라
 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 한 생애의 3분
 의 1을 순전히 잠으로 보내고 있다.
 60년이 한 생애라면 20년을 잠으로
 보낸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한
 결같이 24시간뿐이다. 이것만은 아
 주 공평하다. 그러니 살아 있는 시간
 을 좀더 가지려면 잠자는 시간을 줄
 일 수밖에 없다. 인류사에 빛을 남기
 면서 사람답게 살다 간 사람들은 모
 두가 한결같이 잠자는 시간을 줄이
 면서 깨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
 람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 길거나 짧거나 한정
 되어 있다. 그러니 잘사는 사람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쓸 줄 아
 는 사람이고 잘 못사는 사람은 모처
 럼 자기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임
 에도 그걸 모르고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

니다. 강물처럼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시간과 조류(潮流)는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나 물건은 아까워하면서도 시간은 아까워할 줄을 모른다. 시간이란 곧 우리들 목숨의 한 도막 아닌가.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은 특히 절에서 희박하다. 정해진 시간 약속을 어기기 일쑤다.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은 게으름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어떤 신도들은 일없이 절에 와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일없는 스님들과 어울려 노닥거리는 일이 많다. 무엇 때문에 절에 다니는지 알 수 없다.

시간이 남아 주체할 수 없어 절에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불일이 끝났으면 절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스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쓸 게 아닌가. 공부할 시간을 자신이 빼앗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불평만 한다.

도시 주변에 있는 포교당 같은 데

가보면 시간을 갈아뭇개면서 탕진하고 있는 광경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 불자라면 다 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나그네가 한나절의 한가로움을 얻을 때 주인은 한나절의 한가로움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데에 마음을 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선용하는 데에 마음을 쓴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귀한 줄 알고 잘 쓰면 거듭거듭 창조와 향상의 삶을 이룰 수 있고, 시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소모요, 낭비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자기 시간도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하겠지만,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훔치는 사람이야말로 큰 도둑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목숨의 한 도막을 빼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은 친구란 함께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고 나쁜 친구란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가끔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모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흔히들 말하기를, 새털같이 많은 날을 두고 뭐 그리 서두르냐고 한다. 이런 말은 시간과 목숨에 대한 모독이다. 누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은 살아 있다고 하지만 내일을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가.

그러니 무슨 일이건 미루지 말고 마음 내렸을 때 곧 착수해야 한다. 임제 선사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바로 지금이지 따로 시간은 없다.(卽時現今 更無時節)’라고. 이 다음으로 미루면 현재는 소멸되고 만다. 사람은 현재에 사는 것, 바로 지금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라고 할 때 이미 석양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든지 아침에 행하라는 것이 옛 어

른들의 교훈이다.

원효 스님은 그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이 끝이 없는데 나쁜 짓은 날마다 늘어가고, 내일이 끝이 없는데 착한 일 하는 날은 많지 못하며, 금년 금년 하면서 번뇌는 한량없고, 내년이 다하지 않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오늘’, ‘내일’ 하면서 미루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핑계로 한평생을 이다음으로 미루면서 살려는 나쁜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을 고치는 일이 신앙생활이다. 생활에 개선이 없으면 삶은 탄력을 잃고 침체되기 쉽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는가. 내가 내 인생을 개선해가면서 살아갈 뿐이다.

《발심수행장》은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 어느새 하루가 흐르고 어느덧 한 달이 되며, 한 달 두 달이 쌓여 문득 한 해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바뀌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늘어지면 뒤

을 수 없다. 누워서 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으면 생각만 어지러워진다. 몇 생을 닦지 않고 세월만 허송했으며, 그 많은 날을 헛되이 살아왔으면서 어찌서 닦지 않는가. 이 몸은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인데 내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찌 급하고 급한 일이 아닌가.”

시간은 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려보라. 어찌 마음 놓고 잠에 빠질 수 있겠는가. (1986)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참회와 수행

글 • 덕 운(德耘)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출력(2015년 1월 중순 이후) 및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영수증 출력 가능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모임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후원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모임에 등록된 후원회원(가족)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중앙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분께서는 본모임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이사를 가시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께서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삼계 육도(三界六道)라는 업(業)의 바다에서 고통받으며 끝없이 윤회하는 것은 진리를 등지고 객진번뇌를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문(空門) 속에 있는 부처의 자리, 우리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는 자성불(自性佛)을 등진 채 결코 주인일 수 없는 객진번뇌를 주인으로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항상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주인(主人)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마음자리를 여러분은 잘 가꾸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자리를 등지고 매

일 돈과 가족과 몸뚱이를 돌보기에 급급하여 마음자리 따위는 아예 무시하거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곧 눈에 보이는 각종 번뇌를 쫓아 밖으로 밖으로만 헤맬 뿐입니다.

자기가 쓰던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데, 참된 주인공인 자기 마음 부처가 희로애락 우비고뇌(憂悲苦惱) 속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시달려도 찾아보기는커녕 한차례 다독여주는 일조차 마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전도몽상(轉倒夢想)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본은 돌아보지 않고 돈, 가족, 몸뚱이를 위해 부산히 먼지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산물인 돈과 명예를 갈구하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업이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괜히 싫다는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이 콧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은 매일 매일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업이 끝이 없습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죄업이요, 걸음걸음이 죄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진을 털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먼저 이제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지은바 죄업을 녹여 없애는 참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회가 없이는 그 업장으로 인해 도를 닦아 가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지은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본다면 지은바 죄업들이 꼬리를 물고 생각날 것입니다. 이러한 죄업들을 부처님 전에 참회해야 합니다. 오직 스스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면 모든 업장은 구름 걷히듯 사라지게 됩니다. 간절히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회한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무루(無漏)의 묘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무루(無漏)의 루(漏)는 번뇌를 뜻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 번뇌 망상을 좇아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끝없이 타락의 길로 흘러내려 가게 됩니다.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업의 물결을 따라 계속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루(有漏)의 법이요, 세속의 법입니다. 이외는

반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삼매(三昧)를 이루게 되면 저절로 무루가 되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곧 자기의 본성 자리를 돌아켜보는 참선을 통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이 무루의 묘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루의 묘법을 얻을 수 있는가?

〈초발심자경문〉에서는 애욕을 버리고 출가하여 응량기(應量器)를 받아 지니고 대법복을 입을 때 가장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응량기는 스님들이 쓰는 발우를 뜻합니다. 발우를 지니고 법복을 입고 즉 출가하여 도를 닦을 때 깨달음이 가장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반드시 출가해야만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하여도 도와는 먼 생활(生活)을 할 수가 있고, 출가하지 않고도 도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욕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쉬운 일도 아니고, 인간의 오욕을 버리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속은 바로 오욕을 추구하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도(道)를 이루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승단은 오욕을 어느 정도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속보다는 훨씬 도를 닦기 쉽고, 번뇌를 일으킬 일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가하여 무루의 묘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얻음과 같고 범이 산에 있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산에 있는 호랑이의 자재로움과 물을 얻는 용의 묘한 조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듯이, 출가하여 무루의 묘법을 닦으면 기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법과 수승한 이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출가하지는 못했더라도 인연 따라서 복을 짓고 또 이 무루의 수승한 묘법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수승한 법인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묘한 법입니다.

있자고 하자니 보이지가 않고 없다고 하자니 이것이 작용하여 사람을 좋게도 만들고 못게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묘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조화를 진공묘유(眞空妙

有)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세속의 법(法)은 모두가 무상(無常)하고 허전한 뒷맛을 남깁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공묘유(真空妙有)의 법(法)은 쓰고 써도 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 무루의 묘법은 결코 새어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되어 있고, 그것을 달리 선열락(禪悅樂)이라고도 부릅니다. 선(禪)의 기쁨, 삼매(三昧)의 즐거움, 그 수승하고 묘한 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운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는 예와 지금이 있으나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비록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세(末世)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

들어 행한다면 무엇이 해로우냐.”라고 하셨습니다. 야운 스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참으로 진실합니다.

불전불후(佛前佛後)를 핑계 삼고 시대를 탓하는 것은 정법(正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에는 옛사람이 있고 지금 사람이 있지만, 법에는 먼 법과 가까운 법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성함과 쇠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급과 성쇠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고 허망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은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어찌 시대와 흥망성쇠를 핑계 삼아 도(道) 닦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法)과 인연(因緣)이 주어진 이때 힘써 정진하여 닦는다면, 아무리 닦기 어려운 행(行)이라도 닦아 익힌 힘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법(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옛날 도(道)를

이루신 조사 스님들 중, 처음부터 성인(聖人)이었던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범부에서 출발하여 도(道)를 닦아 부처와 조사가 되신 것입니다.

금강 같은 신심으로 세파에 굴하지 말고 끝없이 정진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돌아옵니다. 아니, 수행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어둡고 밝음, 즉 근기(根機)를 잘 살펴서 나에게 맞는 수행법(修行法)을 찾아 큰 원력을 가지고 꾸준히 지혜롭게 정진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공화상(指空和尚)의 계송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衆生(중생)이 與佛無殊(여불무수)요
大智(대지)가 不異於愚(불이어우)라.
何須向外求寶(하수향외구보)아
身田(신전)에 自有明珠(자유명주)로다.
正道邪道不二(정도사도불이)니
了知凡聖同途(료지범성동도)라.
迷悟(미오)가 本無差別(본무차별)이오

涅槃生死一如(열반생사일여)로다.
究竟攀緣空寂(구경반연공적)이니
惟求意想清虛(유구의상청허)라.
無有一法可得(무유일법하득)이오
翛然自入無爲(소연자입무위)로다.

중생이 부처와 다름이 없고,
큰 지혜가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네.
어찌 밖을 향해 보배를 구하라?
몸 밭에 저절로 밝은 구슬이 있었네.
정도와 사도가 둘이 아니니
범부와 성인이 같은 길임을 알아야 하리.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가 한결같네.
구경에 반연이란 본래 빈 것이니
뜻과 생각이 맑고 빈 것만을 구할 뿐이네.
하나의 법도 얻을 게 없으니
자연히 무위에 저절로 들어가네.

올 한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집안의 대소사 모든 일들이 장애 없이 잘 풀려나가길 기원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 2558년 11월 초하루 법문

(2014년 12월 22일)

갑과 을

글 • 이정숙(수필가)

느닷없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외부디스켓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AS기사를 불렀더니 한 시간 남짓 뒤편을 뒤지고 만지작거렸는데도 원인조차 찾지 못한 채 다시 오겠단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더니 이틀 뒤, 다른 사람이 왔다. 그는 자기 권역이 아닌데 차출되어 왔다고 했다. 자신이 가장 경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혼인지 미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른 살은 넘었을 것 같으니 경력이 많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전에 왔던 기사가 해결 못한 문제도 금세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니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갑다.

오전 11시 경에 도착하였으니 늦어도 12시에는 완벽하게 해결될 줄 알

았는데 웬걸 12시가 되고 1시가 넘어도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끙끙거리고 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집안에 외부 사람이 와서 몇 시간째 버티고 있으니 나도 죽겠다. 외출을 할 수도 없거니와 내 할 일한다며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다. 1시가 넘으니 배도 고프다. 하지만 그가 그러고 있으니 밥을 먹을 수도 없다. 난감하다. 그렇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 속 편한 방법은 컴퓨터를 수거해 가서 고쳐오라고 하는 건데 하루도 컴퓨터 없이는 안 되는 집이라 그럴 수도 없고.

오후 2시가 되었다. 그가 우리 안방을 차지한 지 세 시간. 슬슬 짜증

이 올라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를 생각하면 내색도 못하겠다. 내 배도 고프지만 한참 혈기왕성한 그는 또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싶어 간단히 그의 식사를 챙겼다. 밥을 차려 차분히 먹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 같지가 않았다. 다음 스케줄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듯 여기저기서 독촉전화가 걸려 왔고 그 역시 몹시 초조하고 조급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빵과 우유, 과일을 담은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아 주며 우선 요기라도 하라고 했더니 무척 황송해 한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커녕 몇 시간째 그러고 있으니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동안 그에게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서른 두 살, 아직 미혼. 토요일까지 나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수령하는 돈은 더 많지만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자기 손에 들어오는 액수)

새벽 6시경이면 집에서 나와 6시 반 사무실에 출근. 수리하기 위해 전날 수거해 온 컴퓨터들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시간은 8시 반. 그때부터 이집 저집 방문하며 컴퓨터를 고친다. 점심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장소는 공원 벤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 안일 수도 있으며, 편의점 탁자일 수도 있다. 한 폰이라도 아껴야 하지만 가끔은 국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미소된장국을 사서 함께 먹는다. 커피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타카지고 나온다. 일이 많은 날은 도시락을 두 개 싸들고 나와 저녁까지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밥과 김치, 간단한 밑반찬 한 가지가 전부다.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시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손수 싸온단다. 이른 시간에 나오는데 어머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밥을 사 먹거나 토요일에 쉬는 직원들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한다.

퇴근은 보통 저녁 8시 반, 아침 6시에 집을 나오니 무려 14시간 반을 밖에서 보내는 셈이다. 눈물 나는 돈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 일을 하여 겨우 15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유명회사에 AS사원으로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이고 수입도 더 많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 대기업 AS사원들의 월급은 평균 160만 원 선, 아예 고정급이다. 그래서 AS기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데모를 하는 거라고 한다. 결국은 그게 그거라는 얘기다.

AS기사들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는 아직 부양할 가족이 없지만 기혼자인 경우는 그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가 자신의 권역이 아닌데도 자신이 뽑혀 온 이유가 '경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물었다.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경력이니 최소 몇 년은 되었겠지, 어렵하며 그

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나의 기대를 단박에 무산시켰다.

“1년 됐습니다.”

1년 된 사원이 베테랑이라니!

대화를 하는 도중 혹시나 우리 집을 방문한 기사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거칠게 한 적이 없었는지, 그들의 의기를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없지만 은연중에 갑질을 하여 가뜩이나 팍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시민이라 하여 늘 ‘을’인 줄 알지만 가끔은 우리도 ‘갑’일 때가 있다. 집에서 쓰는 생활 가전을 고치기 위해 AS기사를 불렀을 때는 물론,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원 앞에 섰을 때, 택배를 받을 때,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갑’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들을 업신여

기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고 비수 같은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갑질은 힘

있는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집에 온 지 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다. 혹여 방문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한 집에 가서 비굴한 자세로 짹짹 빌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할 작가를 기다립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1994년 5월 첫 창간하여 매일 법정성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글, 지역모임의 활동 안내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행사 및 법회 등의 소식을 담아 회원 및 신도를 비롯하여 각 지역모임, 길상사 방문객,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의 뜻에 공감하여 마음을 함께 해줄 여러 작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시, 수필, 에세이, 칼럼, 카툰)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모집 안내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 접수 및 문의 받습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 (clean94@dcl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작가의 의향에 따라 연재물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회원이나 독자의 글(단편)은 채택될 시 귀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십시오.
-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02.741-4696 (편집자 홍정근)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승객 한 사람이 버스를 향해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기사님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못 타셨는데요?”

버스 기사가 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에 짐을 한 가득 인 채 걸어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오셨지만, 연세와 큰 짐 탓인지 속도가 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서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승객은 바쁘다며 버스가 출발하길 재촉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지요 죄송합니다!”

기사님의 어머님이시라 하니 승객도 더 이상 그냥 가자는 재촉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이고 있던 짐을 받아 드는 청년.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쟁 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마치 전염된 듯 너나 없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보낸 용돈을 보약을 지어 다시 자식에게 보냈던 당신 어머니에게도 곱던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텐데. 자식들은 날 때부터 어머니 나이였던 줄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도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만 남기 전에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세요.

이 달의 명언

늙어가는 아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 명심보감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와 제휴하여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눈물 흘리는 청춘들

- 20대가 본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글 • 정주아(작곡가)



‘아트버스터’란 신조어를 아시나요? 아트버스터(Artbuster)는 예술성을 갖춘 블록버스터라는 뜻으로 관람객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로 소수 매니아들에게만 관심 받던 예

술성 짙은 영화들이 상업영화를 물리치고, 큰 히트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올 해만 해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비긴 어게인>, <한공주> 등이 입소문만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현재 150만을 돌파하며 저예산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화제의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고 왔습니다.

76년간의 사랑이라니... 어디 제가 짐작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언론은 이 영화의 흥행요인이 20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시장이 그렇듯 자극적이고, 현란한 콘텐츠에 지친 젊은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아날로그

적인 감성의 콘텐츠를 찾게 되었고, 이들이 직접 보기 보단 부모님을 위해 예매해드리는 비율이 높으며 또, SNS를 통해 입소문을 활발히 내고 있는 세대로 20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소재 “사랑”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한결 같은 사랑이죠. 영화의 주인공인 노부부는 외출을 할 때면 언제나 색 고운 커플한복을 입고, 눈이 쌓인 마당에서 신나게 눈싸움을 하며 매일매일을 신혼처럼 보냅니다. 영화는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초반의 분위기와 후반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른데요, 그래서 저도 그 흐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사랑”에, 후반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할머니의 생신 날 잔칫상에서 벌어진 남매

의 싸움 장면으로, 먼저 서울로 올라가려는 장남에게 “오빠가 어머니 아버지 아플 때, 밥이라도 한번 해드려 본 적 있냐”라며 소리치는 딸의 모습이나 마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너무도 익숙하게 와닿아 더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본 듯 창피함을 느낀 건 저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답게 과장되거나 거짓된 연기 없이 실제 주인공들의 삶과, 자연 풍경, 편안한 피아노 음악으로 채워져 있어 화면을 보는 것 그 자체로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영화를 본다가 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 이웃의 삶을 엿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화 속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이 흐름과 비슷합니다. “역정을 이겨내고 핀 꽃이 가장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듯, 사계절을 따라 따사로운 햇살부터 장대비까지 겪고 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되어 있겠지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가꾸고, 또 지는 것 - 산날 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저에게 이 영화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찾아 볼 수 있다면, 단순히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 하나의 사랑을 오래 지키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20대인 저에게는 세월을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 죽음 같은 주제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보다는 부모님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에서 오는 슬픔과 깨달음이 더 컸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 잇기 쉬운 가족과 건강에 대한 소중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점이 참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년층에게는 공감음, 중장년층에게는 가족애를, 젊은이들에게는 로맨스를 말이지요. 보는 이가 영화 속 작은 에피소드들에서 상대방을 향한 이 노부부의 희생과 노력을

예술 분야에서 점점 더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소재 자체가 힘 있는 작품들이 각광받게 될 것이고, 개인마저도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과잉공급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좋은 소재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글을 찾아보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의견을 나누고,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주말, 사람 많은 시끌벅적한 곳에서 벗어나 다양성 영화를 볼 수 있는 독립영화관을 찾아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아~ 백두산!

글 • 강인철

백두산에 올라 새해를 맞이해보고 싶은 건 오래 전부터의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 어렵사리 나선 길이 너무 멀었다. 중국 땅을 밟으며 온종일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그러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만주벌의 겨울은 춥고 어두웠다. 이국땅에서 저문 세모의 밤, 뒤척거리느라 끝내 선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낮선 잠자리 탓도 있었지만 백두산에서의 새해맞이라니 꿈만 같은 흥분이 너무 컸다.

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 그 길을 다 밟아 보지는 못했다.

개마대산, 도태산, 불함산, 장백산은 모두 백두산(白頭山)을 일컫는 이름들이다. 산을 오르는 데는 방향에 따라 동파, 서파, 남파, 북파로 나뉜다. 하지만 천지를 중심으로 동남쪽은 북한 땅이고 서북방은 중국령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지프(Jeep)차로 천문봉 능선에 올라 16개 봉우리가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눈에 담고 오는 곳은 북파 길이다. 거기서 우리는 소천지를 지나 장백폭포와 풍구를 거슬러 천지의 물을 마셔볼 수도 있다.

그에 비하면 서파는 경사가 많이 완만하다. 게다가 아직 별다른 편의 시설도 없고 흙길이어서 북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야생화가 지천에 가득한 여름철에는 걸어서 천지까지 오를 수 있는 들꽃 트레킹이 제격이다. 초여름부터 피기 시작하는 노란 만병초, 바이칼 핑의 다리,

* 정주아 님은 음악이랑 연예하고, 미술이랑 바람피는 젊은 작곡가로 미술 및 음악 콘텐츠를 다루는 블로그(www.eargasm.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 매발톱 등은 사람을 신선으로 대접해 주는 것 같아 경건하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중국당국이 '갈림성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을까.

어둠 속 꼭두새벽의 서파길 한기(寒氣)는 숨쉬기조차 거북스러울 만큼 차갑고 무거웠다. 스노모빌을 빌릴 수 있어 다행이지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듯 그렇게 의지(意志)만으로 가능한 곳은 아니었다. 고글은 기본, 스패츠에 아이젠을 단단히 묶고 뜨거운 물도 한 병 챙겼다. 구도자의 고행길이 이러했을까? 매서운 영하 28도를 뚫고 오른 정상은 그제야 밤을 털어 내리는 듯 산세의 윤곽이 어슴푸레했다.

살을 벨 듯 지나가는 칼바람이 차갑다 못해 아프다. 눈 덮인 산봉우리인지 하늘의 구름인지 종잡을 수 없는 운해(雲海)가 용틀임을 하더니 온누리가 노랑고 빨강계 물든다. 그렇게 새해, 새 아침의 붉은 해가 솟았다. 얼어붙은 불을 새날의 햇살이

따사로이 어루만져준다. 육당(六堂) 선생은 일찍이 그 장엄함을 '한 아버지'로 비유한 바 있으나 우리는 만세를 부르자던 약속도 잊은 채 침묵하고 말았다.

백 번 올라야 겨우 두 번밖에 볼 수 없어 '백~두' 천지라고도 불렀다는 바로 그 천지(天地). 얼마나 기다려 온 만남인가. 안녕이란 눈인사에 천지도 할 말을 잊었는지 눈 속에 눈을 감고 묵언(默言)으로 답한다. 눈꽃 사이로 천지가 만들어 놓은 신비와 마주 서 있자니 자꾸만 침이 마른다. 얼마나 심한 고요였는지 일행 모두가 장승처럼 얼어붙고 말았다. 함부로 감탄하거나 환호조차 할 수 없는 위엄이었다.

백두산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만주벌에서 세력을 떨친 여러 부족들의 성산(聖山)이었다. 그런 전설적 신령함 때문에 예전에는 신산(神山)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단군신화야말로 한민족의 산신신화요 천신신화였음이 분명한 듯하다.

불끈 솟은 태양을 온몸으로 안고, 이고, 지고 돌아설 채비를 서두르는데 어디선가 눈발이 흩날리더니 상하좌우 대책 없이 마구 어지럽힌다. 겨울 산의 혹독함이 히말라야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여기서도 증명해 보이려는가 보다.

오랜만에 맛보는 폭신폭신했던 자연 설(雪)을 밟으며 내려오는 길은 정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양 평온하다. 바람이 잠든 설원은 고요했고 하늘은 진한 잉크 빛으로 물들어 있다. 바람은 일정한 고도에서만 휘몰아치고 구름은 천지에서나 용틀임을 하는 존재였는가 보다. 하산길 내내 눈꽃으로 뒤덮인 고원의 설경이 눈이 시도록 아름답다.

지지난 여름에 보았던 들꽃세상이 천국의 하늘정원이었다면 이렇게 하얀 겨울 눈꽃 길은 경이롭다 못해 신선들만이 산다는 상그릴라가 바로 예가 아닌가 착각마저 일게 한다.

금강(金剛)이 제아무리 천하제일이라 한들 백두(白頭)에 비할까. 사

시사철 언제라도 아버지를 닮은 봉우리와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너그러운 백두의 구름들이 어서 오라 반겨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남의 땅을 밟아야만 겨우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개성, 평양 거쳐 개마고원을 가로질러 금세 달려올 수는 정녕 없는 일일까.

노랫말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이 남북으로 허리 잘린 걸 생각하면 차마 하늘 우러러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제는 백두산 천지마저 반쪽이 되었다니 어이가 없다. 민족적 비극이라며 분단조국을 애통해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념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술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사랑과 평화는 또 어디에 있던 말인가.

산을 오르며 가벼웠던 마음이 사바(娑婆)에 가까워지자 다시 먹먹해진다. 자꾸만 도리질을 해 봐도 오랫동안 간직해 온 원망(願望)이 원망(遠望)과 원망(怨望)으로 꼬리를 문다.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 범우사



윤오영의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 생각한다.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한 노인이 있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노인은 열심히 깎아 나갔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이리 돌려 보고 저리 돌려 보며 굵뜨기 시작, 마냥 늑장이다. 곁에서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시외로 떠나는 차 시간에 초조해진 주문자는,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노인은 못 들은 척한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대로 달라고 했더니 노인은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냐?!” 한다. 그는 기가 막혔다.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 단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면, 차 시간이 없다가..”

노인은 통명스럽게 내뱉는다.

“다른 데 가서 사우. 난 안 팔겠소.” 방망이를 깎아 달라고 했던 그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아 될 대로 되라는 심경에서 체념한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 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냐..”

노인은 비록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고 있을망정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노인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대충대충 깎아 하나라도 더 만들어 팔면 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내던져 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이고 삶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깨끗한 장인 정신이다. 노인은 방망이를 깎는 일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깎고 다듬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지켜 가면서 의연히 살았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얼마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방망이를 들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 보더니 그제야 다 됐다고 내주었다.

그는 값을 치르고 그 자리를 떠나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 지붕 추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의 천성에 알맞는 직업을 천직天職이라고 한다. 인간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저마다 뭉뚱이 필요한 일이 주어져 있을 것 같다. 천직을 가진 사람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 ‘인간이 날로 성숙되어 가고 그 일에 통달한 달인이 되어간다.’

천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그 일이 바로 천직이 아니겠는가.

- 법정스님의 글

‘직업인가 천직인가’ 중에서

공감대화 첫 번째 항목 ‘상황’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대화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라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눈을 맞추고, 알맞게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에 추임새를 넣고, 내 의견을 적당히 말하고 등의 대답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익숙한 상대,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는 기존에 형성된 시간의 쉼이 더해져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소통이어야 합니다. ‘소통 안 되는 상태’를 ‘소통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해보자’는 마음먹기입니

다.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노력하면 됩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공감대화를 하려는 노력’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가 편하고 즐겁지 않거나, 피하고 싶다면 공감대화의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공감대화는, 4가지 항목, 상황 - 느낌 - 바람 - 부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상황’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귀로 들은, 코로 냄새를 맡은 등, 눈·귀·코·입·몸으로 알아차린 것만 말해야 합니다. 머리로 상상하여 말하지 않아야 하고, 미루어 짐작하여

말하지 않아야 하고, 과장하거나, 과소하여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방바닥에 옷이 놓인 것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너는 매번 옷을 이렇게 던져놓더라.’ 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한 것이고, 내 생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매번은 과장입니다. 매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던져놓더라’라는 표현은 내 생각입니다. 자녀는 의자에 걸쳐놓은 것인데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자에 걸쳐놓은 옷이 떨어진 것이라면, 자녀는 ‘던진 거 아닌데요.’라고 항의할 것이며, 이 항의의 말 이후의 대화는 소통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대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번 아닌데요!’ 이렇게 과장되었고, 평가된 말은 자녀에게 비난의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 경우를 ‘상황’ 항목의 설명에 따라 말한다면, ‘옷이 방바닥에 있는 것을 보니…….’입니다. 자신이 본 그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 항목의 설명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조언은, 평소에 말했던 대로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평가와 비난을 섞어서 말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일단, 평소에 나오던 말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 라고 생각한 후 입을 열어야 합니다.

또, ‘상황’ 항목은 현재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옷을 바닥에 놓은 것을 재인식시키면서 이야기하면, 그 때의 느낌이 같이 올라옵니다. 만약 지난번에 바닥의 옷으로 인하여 서로 불편했었다면 그 느낌이 다시 인식되어 공감의 문을 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전날 부모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깁니다.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부처

님 말씀도 현재에 살라는 것이듯 공감대화의 방법도 지금의 대화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의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문을 열기도 전에 더 단단한 마음의 벽을 한 칸 더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옷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옷을 이렇게 해놓았어?' 라는 말은 멈추고, '옷이 지난 수요일에도 바닥에 있어서 이야기했었잖아. 그런데 오늘도 바닥에 있는 것을 보니…….'라고 정확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같이 TV를 보고 있다면, 즉, 서로 같이 아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상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아는 상황이라도 더 설명하거나, 강조하려면 '~한 것을 보니, ~하다는 말을 들으니'라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상황' 항목은 생략 가능하지만, 처음 공감대화 훈련을 할 때는 생략하지 않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등 감각으로 체득한 것만 말하는 것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옷이 바닥에 있는 것은 상대도 당연히 수긍하는 상황이었지만, 매번이라고 말하거나, 던졌다고 표현한다면 상대가 수긍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있는 그대로인 '상황'을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오히려 후회하는 물 같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면서 말할 수 있다면 입이 도끼가 될 확률은 훨씬 줄어 들 것입니다.

* 공감대화는 총 6회 연재됩니다. 다음 3회에는 '느낌'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해목을 치료하다

글 • 심정희(회원)

아무 탈 없어야 할 텐데……. 저 큰 눈 더미에 파묻혀 있는 조경 나무들이 과연 무사할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눈밭을 내다보니 멍하니 가슴이 짓눌려 졌다.

역시나 2m나 되는 눈 더미가 한 달여 만에 녹아내리면서 속속 드러나는 뜰의 나무들은 모두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상처투성이가 된 처참한 모습들이었다. 과일나무고 조경나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마당은 초토화되었다. 집채만 한 눈 무게에 조경 나무들은 원대만 남았고 허영계 찢어지고 가지들은 떨어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2014년 2월 6일 영동지방에 사흘 동안 눈 예보가 있었다.

뉴스 예보대로 6일 저녁나절부터 가느다란 싸락눈이 살살 내렸다. '어휴~~~ 2월 눈인데 이제 설도 지났고 봄눈 내려봤자 얼마나 오겠어. 지난겨울도 길고 추울 거란 예보도 그다지 출처 않고 잔잔하게 잘 지나갔잖아. 이 정도 봄눈 쫓아야 하루 이틀 참아야지 뭐~' 뒤늦게 오는 눈 세상이 마냥 반가운 척 너그럽기만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느다란 그 싸라기 같은 알맹이 눈발은 자고 일어나도 퍼붓고 또 퍼붓고 몇 밤을 까맣게 지새웠다. 자욱한 회색 하늘은 뽕 뚫린 것처럼 무섭고 야속했다. 독거노인이 눈 치울 힘이 없으니 제발 그만 좀 그쳐달라고 손 모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하

늘 뜻 내키는 대로 실컷 쏟아 부은 지 꼬박 7일이 넘어서야 서서히 멈춰 들었다. 이미 세상은 쌓이고 쌓인 눈더미로 사물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해발 몇 미터의 눈산으로 '억' 소리만 터질 뿐이다. 마당에 자동차는 어디 있고, 장독대는 어디쯤인지 수십 그루의 나무들은 덩그런 묘동산이 되어서 분간할 수도 없다.

칠성산 준령이 동해로 뻗은 망덕봉 산 아랫마을인지라 강릉 시내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린 눈은 내 키보다 높았으니 꼼짝 못 하고 며칠을 갇혀 있었다. 방송에선 연일 강릉지방에 백여 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난리였다. 상상할 수 없고 어이없는 자연 재해 앞에 선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힘없는 인간임을 툭툭히 절감했다.

점점 나이 들어감에 자연이 좋았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귀촌하여 어린 묘목을 심고, 열심히 자리 잡아온 세월이 초라했다. 빙그레 웃음을 주는 성목들은 식구처럼 사랑스러워

아하고, 이제는 탐스러운 수확을 거둔다고 자랑도 했다. 한 번씩 지인들이 놀러 오면 즐거워하고, “나무 참 잘 키웠네요. 일 많이 했어요.” 인사를 들을 때면 흐뭇하고 나의 노고를 스스로 생각해도 칭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무일에만 묵묵히 매달려 온 삶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자연이란 거대한 흐름은 단 한 번에 이렇게 잔인하구나…….’ 아무 준비도 없이 폭설을 만난 나는 나무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다.

무서운 눈 폭탄을 맞은 나무를 바라보면 밖에도 나가기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멋진 숲 하나 만들어 본다고 자신했던 세월을 눈뜨고 베어 버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허영계 된 나무 상처가 바짝 말라 갈 즈음에 생각 하나가 스쳤다.

나무 전문가를 불러와서 이 상태를 보여나 볼까? 대학교 정원사로 일

하는 일급 조정사를 물색하여 직접 진단을 받았다. 벌써 나무진이 다 말라서 다시 붙으려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리라 고 했다. 얼마나 고마운지 내일이라도 얼른 와서 일하면 좋겠다고 미리 계약금을 치렀고, 다음날 조정사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맑은바정원 일을 정성껏 하였다.

나는 열심히 간식과 커피를 서비스하고, 맛나는 점심 식사도 성찬으로 차려 내었다. 속살이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진 상처엔 약을 흠뻑 바르고 나무 봉대로 잘 감아 주었다. 나무가 푹 부러지고 약간의 꺾이기만 붙어 있어도 잘 일으켜 세워 몇 가지의 약을 치대 바르고 봉대를 감고 마대를 돌려서 철사 줄로 단단히 묶어 주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을 박아서 깎스한 나무가 조금도 흔들리

지 않도록 고정해 주었다. 의사가 꼭 사람 팔다리 깎스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루 종일 조정 전문가답게 상처 투성이 설해목을 완전하게 치료하고 예쁘게 다듬어 주고 갔다.

지난 더운 여름은 우리 집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었다. 치료를 받은 지 이제 겨우 한 철이 지났는데 어느새 부러지고 찢어졌던 모습들은 몰라보게 하늘하늘 제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살려고 하는 생명줄이란 사람이나 식물이나 놀랍도록 끈질기다. 내 에너지가 다 들어부은 보석 같은 나무들~ 눈 폭탄에 못 쓰게 되었다고 말짱 배어 버렸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상봉은 없었겠지?

상처 난 가지마다 꼬물꼬물 기적 이 움튼다.

* 저는 길상사 초창기 불자였습니다. 보현회에서 2년여 동안 목요팀장을 하였는데, 강릉으로 내려오는 덕에 이제는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가끔 길상사가 그리우면 예고 없이 달려가서 추억에 젖어봅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법정스님과 편지를 나누었고, 친필 사인 책 4권을 소포로 받아서 보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받아 읽기만 하기에 미안스러워 부족한 수필 한편 올립니다.

키스 할아버지네 집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동네의 어른들이 한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신다. 집앞에서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던 분도 있고 얼굴만 아는 이웃도 있다. 대부분 40대에 이사와 자녀를 키우며 살았다. 이혼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부부가 노후를 함께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 동양인 가정이지만 이곳에서 딸을 초등학교에서 사회인으로 키워낸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긍지를 느낀다.

동네에 이사 와서 한동안 산책을 즐겼기에 나는 이웃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작가 생활로 몰입한 후 부터는 산책하는 시간도 줄었다. 가끔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선다. 뒷길 남동쪽으로 돌아가면 몇 쟁이 노부부가 살던 집이 있다. 미스터 레이즈 할아버지 댁이다. 얼마 전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무슨 사연인지 몇 달 살더니 이혼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간단히 해결하는 요즈음 사람들.

우리가 1989년 이사 온 후 차츰 정원을 바꾸어가느라 나는 집 앞 뜰에서 자주 일을 했다. 그때 오후가 되면 인형 같은 백인 할머니가 걷기 운동을 나왔다.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더니 당신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한국인이라며 나를 집으로 초청해 그림을 보여주었다. 거실 입구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 속의 오십 대 할머니의 얼굴이나 육십 대의 얼굴이 똑같았다.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궁금하여 가게로 찾아갔다. 라메사시의 중심

가 그로스몬트(Grossmont) 쇼핑몰 안에 흥익대 미대를 나온 부부가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20년 넘도록 한 자리에서 미국 화가는 물론 한국의 화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열던 김창송 사장이었다. 그의 샌디에고 이민사의 이야기를 듣고 잡지에 올리려고 나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 행사마다 라메사 시장이 후원하고 역사를 자랑하던 그림가게도 불경기의 연속으로 몇 해 전 문을 닫고, 최근에는 샌디에고 중심가 5가에서 계속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단정한 주얼 할머니는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사촌 오빠와 재혼하여 원래의 성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유전법칙을 고려해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한국에 살았던 나는 놀랄 수밖에. 하지만 비슷한 나이에 젊은 부인과 남편이 각각 암으로 세상을 떠나 외로워서 그리 된 사연을 알고는 난 이해를 했다. 우주의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 결혼보다 훨씬 다행이 아닌가. 그분들과 대

화를 나눌 때면 영어 단어를 배우려고 나는 영한사전을 들고 다녔다. 할아버지께 질문할 때 할머니가 참견하면 “당신은 몰라!”라고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영영사전을 꺼내 나에게 답변하셨기에 할머니는 무안하여 입을 삐죽했다. 부부가 타시락타 시락 말다툼하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껄껄 웃곤 했다. 전통적 가정에서 남편들의 독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했지만, 두 분 다 나를 예뻐하셔서 자주 놀러가 미국생활을 여쭙었다. 해마다 12월이면 할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가 시카고에서 찾아왔다.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친 교수였다. 하루는 내가 거실을 증축하고 있는데, 그 친구 분을 모시고 와 한국인 지성인이라며 우리를 소개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간 짙은 집안과 달리 우리 집은 초라해 조금 창피하여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추억이 되었다.

당시 은퇴생활을 즐기던 할아버지는 집 근처 대학에서 사진수업을 받았고, 화장실을 암실로 만들어 놓고 우리 모녀를 불러 여러 장의 사진도 찍어 주었다. 또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시판되자 알파벳만 알고 온 내 딸이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여 긴 인쇄용지(도트 프린터)에 축하한다는 말을 찍어 긴 두루마리를 선물로 주시어 여태 간직하고 있다. 그때 칠순도 안 된 할아버지가 백혈병 약을 드시며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병원에 갈 적마다 줄어드는 백혈구의 숫자를 검사하던 할아버지는 다가오는 죽음을 걱정하기는 커녕 아무 일 없듯이 배우기를 계속했다. 하루는 늦둥이 손자에게 준다고 목공수업을 다니며 멋들어진 목마도 만들었다.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딸의 대학 준비로 북가주에 여행을 떠나버린 사이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갈 줄이야. 게다가 외동딸이 조종사인 남편과 이혼한 것도 할아버지는 속상하셨을 것이다. 생전에 내가 유

창한 영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할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덕 앞에서 지난 날 집 모퉁이에서 자동차 소리를 뽕뽕 울리며 정원에서 일하던 나에게 신호를 보내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곤 한다.

할아버지는 독일계 백인이지만 부지런하고 다정한 분이였다. 죽기 전에 새 자동차를 한번 더 타보려고 샀다며 우리 가족을 부익차에 태우고 코로나도 섬을 처음 구경시켜준 일도 난 잊지 못한다. 그 무렵 나는 중학교의 수학과 보조교사로 매일 근무했기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수술한 친정어머니 병구완하며 집 안팎으로 일밖에 모르던 가련한 여인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에 할머니는 집을 팔려고 차고세일을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만 들었다는 작은 탁자를 샀다. 허무했지만, 좋은 이웃을 생각하며 사용한다. 집 근처 호수가 보이는 작은 아파

트로 이사한 할머니는 몇 달 살고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전화를 받지 않는 동생이 걱정되어 언니가 아파트 매니저와 문을 열어보니 홀로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 미국 법은 친언니도 시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 집을 팔았으니 은행에 돈도 꽤 많았던 할머니. 친조카인 남편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이사 가던 날 공짜로 나에게 할머니가 치던 전기 풍금을 주겠다는데 나는 사양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전주인의 집착이 따라오기에 나는 아무거나 탐내지 않는다.

할머니가 양자로 기른 두 아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만 보내왔다. 왜 그러럼 냉랭한 관계였을까. 살아 있을 때 사랑을 좀 더 베풀었으면 노년도 외롭지 않으실 터인데, 말썽꾸러기 아들인가 보다. 그러나 돈복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더니, 할머니의 유산은 아마 두 아들에게 횡재처럼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집을 잘 가꾸던 전주인 레이즈 할아버지네 가족을 알고 있어 서인지, 나는 누가 이 집에 이사와 새 역사를 이어갈지 궁금했다. 이사는 남자 주인은 뒷문 위쪽에 할아버지가 꾸며놓은 예쁜 목공 아치도 확 뜯어버렸다. 멀쩡한 현관문도 새로 바꾸었다. 할머니가 부엌 창문 너머에 가꾸던 사슴 뿌리 모양의 꽃 벽걸이로 장식된 작은 정원도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전주인과 취미가 다른 새 주인이 이혼했다는 소식 때문인지 가끔 길에서 서서 바라보는 집은 적막감마저 돈다. 간혹 길에서 검은색 개와 주인 남자를 보지만, 나는 다정히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 집 앞에서 잠시 “미스터 레이즈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가신지 십 년의 세월이……. 무상합니다”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길에 서있는 가로수도 그대로 남아 있겠지. 때가 와 나도 이생을 떠나면 이웃 중에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자본주의 ‘드로르’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 13조 2870억 원, 현대기아그룹 정몽구회장 7조 6440억 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조 1790억 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4조 3400억 원, SK 최태원 회장 3조 5천억 원,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2조 2370억 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 원은 1만 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 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

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 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 원씩 썼다고 해도 1조 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지만 한 달에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근희 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가계부채가 117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 원의 빚을 지

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 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 원을 버는 셈이니 20년 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 원에 팔렸더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

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대 유대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에서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차등 없는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웅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가.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어나 토마스 뮌저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 3000여억 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 9000억 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 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지적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껴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을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 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된다면 월급이 2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의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풍토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자본주의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꿈일까?

배움의 길에서

글 • 김선애(번역가)

2009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한 중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강사로 일했다. 그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사 생활이었다.

내가 맡은 반은 중2 한 반과 중3 한 반이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수업 자료를 만드는 등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나는 한 아이가 가을을 좋아한다고 한 것을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아이의 이름과 함께 "I like autumn better than summer.(나는 여름보다 가을을 좋아해)"라는 예문을 수업자료에 넣어 나눠주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내게 외쳤다. "선생님, 사랑해요!"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랑고백에 당황해, 나도 사랑

한다는 말도 못하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에 곧 지쳐갔다. 얼마나 빨리 집에 가고 싶었으면 가방을 멘 채 수업을 듣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권위 있는 선생을 연기하려 했지만, 형편없는 연기로 관객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나도 한때 학생이었으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방과 후에 또 수업을 듣고 싶은 아이가 누가 있겠는가? 학생들은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고, 수업 도중 불쑥 일어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놀이판을 벌였다. 아이들은 지루한 학교생활에서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수업 중에는 그 모든 것이 이수라장으로 보

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도록 돕고 싶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다운지, 자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도록 돕고 싶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세상을 알아야 할 때에 아침부터 밤까지 교실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 서로 치고받고 소리치고, 뭘 반성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반성문을 쓰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그 상태가 되기까지 겪은 것, 겪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날마다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변해가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한 번뿐인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 한 순간 곁에 있게 되어 감사했다. 아이들을 만나서 기쁘고 슬프고 고마웠다.

많은 선생님도 영혼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아는 아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도 여전히

솔한 실수를 저지르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 그 진한 사랑과 쓰러린 시행착오의 계절을 지나며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바랐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하지만 나는 좋은 선생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다. 결국 나는 풋내기 선생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하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고, 내 안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강사를 한 뒤로, 거리에서 지나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남 같지가 않고 짧은 시간 나와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 같았다. 십 대였던 우리 반 아이들은 이제 이십 대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 신비롭고 만만치 않고 근사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을 것이다. 그 배움의 길에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및 소식지 발송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마음, 세상,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장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모임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군법당, 병원, 교도소, 복지단체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연간 소정의 우편비용을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으며, 길상사에서 등록된 신도 분에게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내역이 전혀 없는 회원의 경우 본모임 활동에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015년 3월호부터 소식지 개별우송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으로 인해 후원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2015년 달력 우송 안내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지난 12월 11일 2015년도 달력을 우송해드렸습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후원을 하셨음에도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을 기해 후원해 주신 분에 한해서 1월에 별도로 달력을 우송해드립니다. 2015년 달력은 '장천 김성태' 작가의 '법정님의 죽비소리' 작품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2014년 중앙모임 송년회 및 맑고 향기로운 한미당 진행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2014년 송년회를 12월 14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17주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회원과 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진 맑고 향기로운 한미당도 진행되었습니다. 눈이 오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에애하고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송년회에서는 길상사 개원당시 모습, 법정스님 법문, 2014년 활동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근본정신을 되새겨보았고, 묵묵히 자신의 나눔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서명해, 권미자,

고나경님과 광주모임 김연님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시상하였습니다. (대구: 황병철, 경남: 이혜령) 2부 맑고 향기로운 한미당에는 맑고 봉사자, 길상사 봉사자들이 참여한 장기자랑대화로 진행되었는데 맑고에서 4팀, 길상사에서 9팀이 참가를 하였고, 길상사 합창단, 옥담화 보살의 전통무용, season of soul의 촛조공연과 행운권 추첨연, 화장뽕까지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본모임이 20년이란 세월동안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법정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고, 나누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아울러 길상사 신도님과 신행단체장님과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에도 덕운 이사장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스님 글,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심볼 무단 사용 제재

본 모임은 법정스님의 저작권을 승계하여 한국복지재단총서작권협회에 신작 관리하고 있으며 스님의 글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출판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상징하는 연꽃 캐릭터와 심볼은 상표법에 따라 특

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회원님께서도 주변에서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 따르릉~ 전화말벗 봉사활동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활동

2015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



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참여를 권장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시실 분은 연락주세요.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묘희원 정기봉사**

묘희원 자원활동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녹색장터가 열리지 않는 겨울동안 가정에서 친환경 경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 중단

승가원 시설의 내부적인 2015년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변동으로 인하여 2월부터 봉사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본모임은 자체적인 청소년 봉사활동을 기획중입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자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2일금)/오전 10시 ~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일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2,8,9,15,16,22,23,29,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5,12,19,2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_청소년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1,18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희원(차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4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

지점 앞/가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7일)/오후 1시 30분/사달타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7,14,21,28일/수)오전 10시(삼풍, 로션, 에센스, 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6,13,20,27일)/세계일화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 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른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사-음식조리, 19사-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른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 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사-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 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른신 목욕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른신 장애우 이동목욕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1,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신정합동차례

- 일시 : 1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설법전

천일기도 100일 회향사식

- 일정 : 1월 18일(일)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동참금 : 5만원

다라니기도

- 일시 : 1월 3일(토) 오후 7시~9시
- 장소 : 설법전
- 영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10일(토) 오후 8시 30분
~1월 11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설법전
- 준비물 : 물, 수건, 좌복 보호대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월 10일(토) 오후 9시
~1월 11일(일) 새벽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 3월부터 시민선방 철야정진 없습니다.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26일(월) 저녁 9시~새벽 4시
- 장소 : 설법전

시간	기도	스님
21:00~22:30	다라니 11독	해근스님
	석가모니불 정근	
22:30~22:40	휴식시간	
22:40~24:00	법성계 21독	상철스님
	석가모니불 정근	
24:00~01:00	죽공양 및 휴식(후원)	
01:00~02:20	금강경 독송	각경스님
	석가모니불 정근	
02:20~02:30	휴식시간	
02:30~03:35	108참회	정광스님
	석가모니불 정근	
03:35~03:40	자리정돈	
03:40~03:55	참선 및 발원문	담당스님

「맑고 향기롭게, 근보도량 길상사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보리회, 청년회, 합창단, 천수회, 연등회, 새신도봉사팀입니다. 수행과 자비로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 자원봉사 문의 - 02)3672-5945

기초경전반 개강

- 개강일 : 1월 6일(매주 화요일, 총 8강) / 과목: 반야심경 · 천수경
- 시간: 오후반 1시 40분 / 저녁반 7시 30분 / 장소: 설법전
- 강사스님: 진우스님 (길상사 교무스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극락전 내부 보수공사로 인하여 1월에는 설법전에서 예불 및 기도, 재사가 봉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2월 7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14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날합동차례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吉祥寺

불교대학 6기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5년도 제6기** 길상사 불교대학 수
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 법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제 :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3월초 / 개강~ 다음해 1월 /졸업
- 제출 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2매
- 접수 : 현재 상담 및 접수 중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주간반/야간반)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 학사일정은 추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